

#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

2019.8.21

## CONTENTS

---

### I. 셀프연금,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 II. 셀프연금의 3가지 유형

1. 고정소득형(FWI, Fixed Withdrawal Income)
2. 고정기간형(FWP, Fixed Withdrawal Period)
3. 고정비율형(FWR, Fixed Withdrawal Rate)

---

### III. 셀프연금 활용방안

1. 연금공백기 대비
2. 공적연금의 효과적 활용
3. 지출 패턴에 맞는 현금흐름 설계
4. 적극적 운용을 통한 노후소득 증대

---

### IV. 시사점

정나라 선임연구원

02-3774-6979 | [nara.jung@miraeasset.com](mailto:nara.jung@miraeasset.com)

## < 요약 >

● **고령화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셀프연금’이 중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사람들은 연금이라 하면 보통 국가에서 받는 공적연금이나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 연금을 떠올리지만, 은퇴자가 이 두 가지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기는 어려움.
  - 공적연금만으로는 필요생활비를 전부 조달하기 쉽지 않고, 종신연금은 개시하고 나면 중도 해지가 어려워 자금 활용도가 떨어짐.
- 이 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셀프연금’으로, 셀프연금이란 개인이 금융 자산을 활용해 스스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함.

● **셀프연금을 잘 활용하려면 셀프연금의 유형별 특징을 알아두어야 함. 셀프연금의 유형은 ‘수령액’과 ‘수령기간’ 중 무엇을 고정하는지에 따라 나뉨짐.**

### < 셀프연금의 유형별 특징 >

유형	은퇴자의 결정요소	수령액	수령기간	수익률에 따른 영향
고정소득형	수령액 (예: 월100만원)	고정	수익률에 따라 변동	수익률>초기인출률 <sup>1)</sup> → 수령기간증가 수익률<초기인출률 → 수령기간감소
고정기간형	수령기간 (예: 10년)	수익률에 따라 변동	고정	수익률>0 → 수령액 전년보다 증가 수익률<0 → 수령액 전년보다 감소
고정비율형	인출률 <sup>2)</sup> (예: 잔액의 5%)	수익률에 따라 변동	수익률에 따라 변동	수익률>인출률 → 자산·수령액 증가 수익률<인출률 → 자산·수령액 감소

<sup>1)</sup> 초기인출률 = 수령액 ÷ 초기자산 × 100

<sup>2)</sup> 인출률 = 은퇴자가 결정하는 값으로, 매 시점마다 남은 자산 중 몇%를 인출할지 정한 비율

● **셀프연금은 다른 연금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며, 국민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연금에 셀프연금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① **연금공백기 대비:** 고령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이지만 국민연금은 만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므로 약 10~15년의 연금공백기가 생기게 됨. 이 때 셀프연금을 활용해 공백기의 현금흐름을 조달할 수 있음.
- ② **공적연금의 효과적 활용:** 공적연금 개시를 최대한 연기하고 부족한 금액을 셀프연금으로 조달하면 노후 총소득을 늘릴 수 있음. 은퇴자가 장수할수록 효과가 커짐.
- ③ **지출 패턴에 맞는 현금흐름 설계:** 셀프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필요에 따라 수령액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고령 전·후기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현금흐름을 설계할 수 있음.
- ④ **적극적 운용을 통한 노후소득 증대:** 공적연금·근로소득·종신연금보험과 같은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다면 셀프연금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노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음.

## I. 셀프연금,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고령화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적연금·종신연금 외에도 주요 노후소득 마련 방법인 ‘셀프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

### ① 셀프연금(Self annuity)이란?

- 개인이 금융자산을 직접 인출하여 스스로 자기규율(Self Discipline)에 기반한 현금흐름을 만든 것으로, ‘자가(自家)연금’이나 ‘DIY(Do It Yourself)연금’이라 부르기도 함.

### ② 셀프연금의 3가지 장점

〈도표 1〉 셀프연금의 3가지 장점

장점	내용
자산의 유동성	필요시 자산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부 인출할 수 있음.
운용의 자율성	은퇴자가 직접 예금, 펀드 등에 자산배분을 실행할 수 있음.
인출의 유연성	본인의 필요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조절할 수 있음.

### ③ 셀프연금과 그 외 연금의 차이

- 은퇴재무설계 분야의 석학인 York대 Milevsky 교수는 ‘개인이 은퇴 후 소비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은퇴시점에 종신연금보험을 구입하거나 자산을 셀프연금화(Self annuitization) 해야 한다’며, ‘셀프연금을 택하면 자산의 유동성이 높지만 대신 조기과산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Milevsky, A.M. and C. Robinson, 2000)

〈도표 2〉 연금의 종류와 성격

		예시	특징	중도해지	운용재량권	종신수령
자율가입 연금	<b>셀프연금</b>	예금, 펀드, 퇴직연금, IRP, 그 외 非종신형연금	자율적으로 연금액 및 수령기간 선택	용이 (세제 등 일부 제약 있음)	있음	X
	<b>非셀프연금 (종신형연금)</b>	주택연금(종신형) 종신연금보험	연금계리를 통해 산출된 금액 수령	불가 (상품내용에 따라 다름)	없음	0
의무가입 연금	<b>공적연금</b>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령방법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음	불가 (해위이주 및 사망 등 제외)	없음	0

● 아래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셀프연금은 중요한 노후 소득 대안으로 떠오름.

- ① **공적연금 부족** :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를 전부 조달하기 어려우므로 개인이 직접 다른 소득원을 준비해야 함. 부부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월 평균 수령액은 158만원으로 최저생활비(176만원)에 미치지 못함.

-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20년인 경우 남성 44.1만원·여성 29.6만원이며, 20년 이상인 경우 남성 92.1만원·여성 66.0만원임.

〈도표 3〉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부부 수령액 및 노후생활비 부족액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최저생활비(원)		적정생활비(원)	
가입기간		수령액 합계(원)	필요금액	부족액	필요금액	부족액
남	여					
10~20년	10~20년	737,782	1,760,100	1,022,318	2,433,900	1,696,118
	20년이상	1,101,302		658,798		1,332,598
20년이상	10~20년	1,217,006		543,094		1,216,894
	20년이상	1,580,526		179,574		853,374

※ 자료: 국민연금통계연보(국민연금공단, 2018),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국민연금연구원, 2018)

② **종신연금보험의 한계** : 셀프연금 외에 개인이 노후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한 대표적 방법은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임. 그러나 종신연금보험은 개시 이후 자산의 유동성이 낮을 뿐 아니라 자산운용, 연금수령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선호도가 낮음. 반면 셀프연금은 자산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연금퍼즐(Annuity Puzzle)**: 헤브루 대학 Yaari 교수의 연구(1965)에 의하면 노후 자산을 전액 종신연금 형태로 보유하여 소비를 평활화(Smoothing)하는 것이 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해(解)임. 그러나 현실에서 노후자산 중 종신연금의 비율은 일부에 그침. 이러한 모순을 학계에서는 ‘연금퍼즐(Annuity Puzzle)’이라 하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Thaler 교수를 포함한 여러 학자들이 이 모순을 풀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음.

③ **자산(Asset)을 현금흐름(Cashflow)으로 전환해야 함** : 개인이 노후를 위해 준비한 은행예금, 부동산 등의 자산은 대부분 저장(貯量, Stock) 형태이므로, 이를 매월 노후 생활비로 쓰려면 유량(流量, Flow)인 현금흐름 형태로 전환해야 함. 이 때 자산을 현금흐름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셀프연금임.

〈도표 4〉 노후 자산의 종류별 특징



- 노후를 위해 셀프연금을 준비하려는 개인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셀프연금의 대표적 유형과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음.

## II. 셀프연금의 3가지 유형

- 은퇴자가 셀프연금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원하는 현금흐름을 ‘얼마나 많이(=①연금액)\*, 얼마나 오래(=②수령기간) 창출할 수 있는지’임.

\* 연금액은 은퇴자가 셀프연금을 통해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본문에서는 문맥에 따라 연금액 외에 연금수령액·수령액 등으로 지칭하기도 함.

– 은퇴자의 셀프연금 설계 목표는 한정된 자산을 활용해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비를 가능한 한 오래,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은퇴자가 일정한 금융자산을 셀프연금으로 전환한다고 할 때, 셀프연금의 유형(고정소득형·고정기간형·고정비율형)에 따라 현금흐름이 달라지게 됨.

– 금융자산의 총금액과 수익률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연금액이 커지면 수령기간이 짧아지고 수령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이 작아지게 됨. 즉, 어떤 유형으로 수령하든 연금액의 총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음.

· 단, 금융자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있으므로 연금액의 총합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님.

– 은퇴자는 셀프연금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요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고정소득형은 ‘연금액’, 고정기간형은 ‘수령기간’, 고정비율형은 ‘인출률’을 결정해야 함.

〈도표 5〉 셀프연금의 유형별 특징

유형	은퇴자가 결정하는 요소	연금액	수령기간	수익률에 따른 영향 <sup>3)</sup>
고정 소득형	연금액 (예: 월100만원)	일정	수익률에 따라 변동	수익률>초기인출률 <sup>1)</sup> → 수령기간증가 수익률<초기인출률 → 수령기간감소
고정 기간형	수령기간 (예: 10년)	수익률에 따라 변동	일정	수익률>0 → 연금액 전년보다 증가 수익률<0 → 연금액 전년보다 감소
고정 비율형	인출률 <sup>2)</sup> (예: 잔액의 5%)	수익률에 따라 변동	수익률에 따라 변동	수익률>인출률 → 자산·연금액 증가 수익률<인출률 → 자산·연금액 감소

※ 자료: 미래에셋은퇴연구소(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은퇴리포트 No.35 참조)

<sup>1)</sup> 초기인출률 = 연금액 ÷ 초기자산 × 100

<sup>2)</sup> 인출률 = 은퇴자가 결정하는 값으로, 매 시점마다 남은 자산 중 몇%를 인출할지 정한 비율

<sup>3)</sup> 리포트 본문 참조

## 1. 고정소득형(FWI, Fixed Withdrawal Income)

- 고정소득형 셀프연금은 ‘일정한 금액(예: 월 100만원)’을 정해두고 자산이 고갈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해당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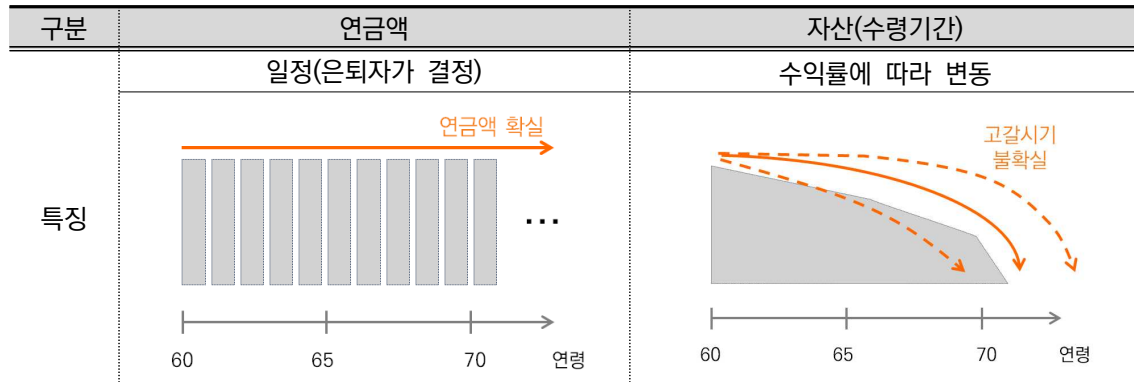
$$Income_1 = Income_2 = Income_3 = \dots = Income_t, (t = \text{시점})$$

- 고정소득형은 가장 간단한 셀프연금이지만 자산의 운용수익률에 따라 자산이 빨리 고갈될 수도, 늦게 고갈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장점] 방법이 간단하므로 이해하기 쉽고, 실수령액이 고정적이어서 노후 소비 계획을 세우기 편리함.

[단점] 물가가 상승해도 연금액은 그대로이므로 장기적으로 실질구매력이 낮아질 수 있으며 운용 수익률이 낮으면 자산이 조기에 고갈될 수 있음.

〈도표 6〉 고정소득형 셀프연금의 특징



- (예시) 1억 원을 보유한 은퇴자가 60세부터 매년 초 1천만 원을 셀프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수익률에 따른 수령기간은 최소 7년~최대 40년 이상임.

– 각 수익률 가정에 따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각각 5,000회 실시함.

(가정) (수익률, 표준편차) = {(2%, 1.5%), (4%, 4.5%), (6%, 7.5%), (8%, 10.5%)}\*

\* 수익률과 표준편차 가정은 샤프비율이 0.66이 되도록 정한 값임.(이하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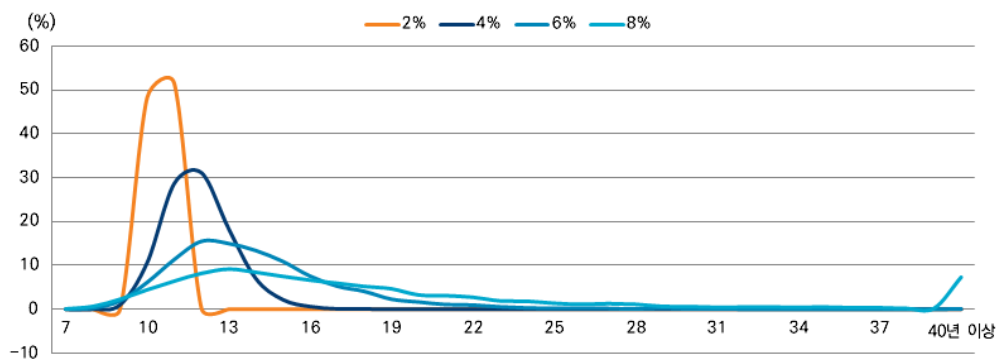
–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수익률이 높아질수록 평균 수령기간이 길어지지만, 그에 비례해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의 편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수익률이 2%인 경우 평균 수령기간은 10.5년, ‘최댓값(12년)-최솟값(10년)’은 2년임.
- 반면 8%인 경우 평균 수령기간은 18.5년, ‘최댓값(40년이상)-최솟값(7년)’은 33년 이상임.

〈도표 7〉 수익률별 고정소득형 셀프연금 수령기간 분포

평균수익률 (표준편차)	연금액	수령기간					
		최솟값	하위 10%	중위수	평균	상위 10%	최댓값
2% (1.5%)	연 1,000만원 x 수령기간	10년	10년	11년	10.5년	11년	12년
4% (4.5%)		9년	10년	12년	11.9년	13년	18년
6% (7.5%)		8년	11년	13년	14.1년	16년	40년이상
8% (10.5%)		7년	11년	16년	18.5년	21년	40년이상

〈운용 수익률에 따른 수령기간 분포〉



## 2. 고정기간형(FWP, Fixed Withdrawal Period)

- 고정기간형 셀프연금은 현금흐름이 필요한 ‘기간(예: 10년)’을 먼저 정한 후, 일정 시점마다 투자자산 잔액을 남은 기간 수로 나누어 인출하는 방법임.

$$Income_t = \frac{Retirement Asset_t}{T-t} \quad (T=\text{총 기간}, t=\text{시점})$$

- 고정기간형은 자산의 소진기간이 확정되어 있지만, 대신 연금액이 수익률에 따라 증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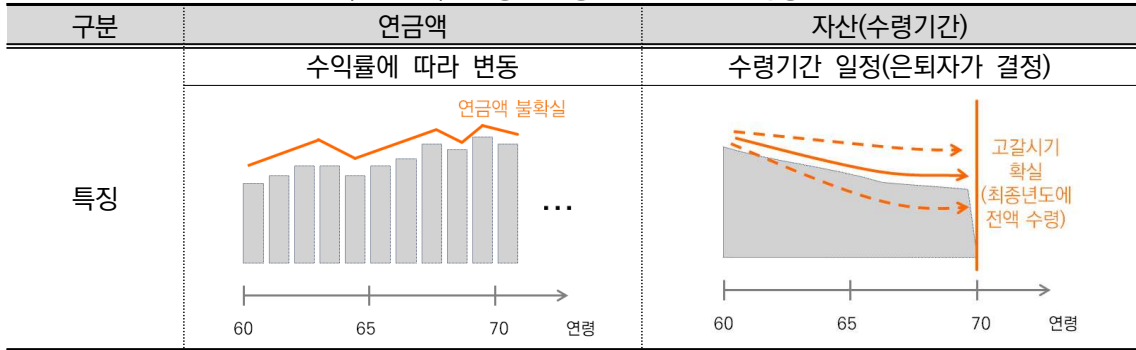
– 현실에서는 대체적으로 운용수익률이 양(+)의 값이므로, 이 방식을 택하면 매년 연금액이 변동성을 보이며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예) 자산 1억원을 10년간 고정기간형으로 수령할 때, 수익률별 연금액은 아래와 같음.  
 연수익률 0% → 10년간 매년 1천만원으로 동일한 금액 수령  
 연수익률 +5% → 첫 해 1천만원 수령, 매년 5%씩 연금액 증가  
 연수익률 -5% → 첫 해 1천만원 수령, 매년 5%씩 연금액 감소

[장점]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사전적으로 정해지므로 수령기간의 불확실성이 없음.

[단점]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하므로 연금액 예측이 어렵고, 수익률이 하락하면 연금액 역시 적어지므로 소비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

〈도표 8〉 고정기간형 셀프연금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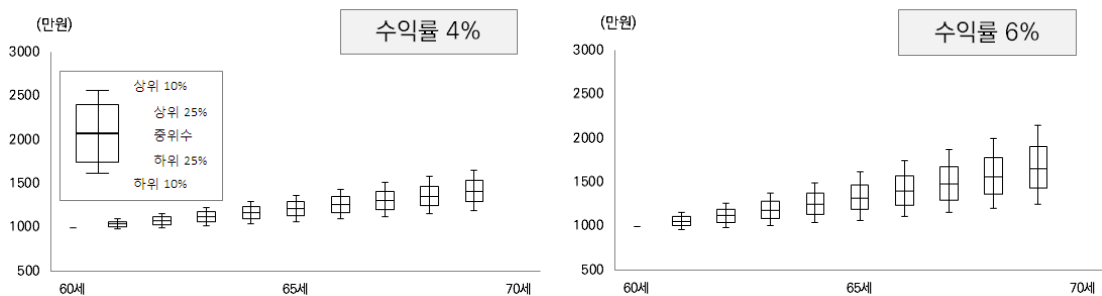
● (예시) 1억 원을 보유한 은퇴자가 60세부터 10년간 고정기간형으로 셀프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 증감 추이가 달라짐.

- 각 수익률 가정(2~8%)에 따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각각 5,000회 실시함.  
(가정) (수익률, 표준편차) = {(2%, 1.5%), (4%, 4.5%), (6%, 7.5%), (8%, 10.5%)}
- 시뮬레이션 결과, 수익률이 4%인 5,000명 중 중위 은퇴자(2,500등)의 연금액은 연평균 3.9% 증가하였고 수익률이 6%인 경우 중위 은퇴자의 연금액은 평균 5.8% 증가함.
- 평균수익률이 모두 양(+)이므로 평균연금액은 모두 증가하며, 시뮬레이션 방법상 개별 수익률이 일정한 상수가 아니므로 평균 수익률과 연금액 증가율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도표 9〉 수익률별 고정기간형 셀프연금 수령액

평균수익률 (표준편차)	중위 연금액(만원)					수령기간
	61세	63세	65세	67세	69세	
2% (1.5%)	1,020	1,061	1,104	1,148	1,194	10년 (은퇴자가 결정)
4% (4.5%)	1,039	1,122	1,212	1,308	1,411	
6% (7.5%)	1,059	1,184	1,326	1,480	1,654	
8% (10.5%)	1,078	1,247	1,442	1,664	1,921	

〈운용 수익률에 따른 분위별 수령액 추이〉





### 3. 고정비율형(FWR, Fixed Withdrawal Rate)

- 고정비율형은 보유자산 중 몇 %를 인출할 지 ‘인출률(%)’을 먼저 정하고, 수령 시점마다 남아있는 자산에 인출률을 곱한 금액(=연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임.

$$Income_t = Retirement Asset_t \times Withdrawal Rate (t=시점)$$

- ‘수익률 = 인출률(또는 필요수익률)’이면 수익이 난 만큼 인출하므로 원금은 변하지 않음. 반면 ‘수익률 > 인출률’이면 은퇴자산·연금액이 동시에 증가하고 ‘수익률 < 인출률’이면 감소하므로, 인출률과 수익률의 상대적 관계가 중요함.

[장점] 기대수익률에 따라 인출률을 조정하여 현금흐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음.

- 인출률을 기대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면 현금흐름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음.
- 인출률을 기대수익률보다 낮게 설정하면 은퇴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하므로, 고령 초기보다 후기의 연금액이 커지도록 설계할 수 있음.
- 인출률을 기대수익률보다 높게 설정하면 은퇴자산이 계속해서 감소하므로, 고령 초기보다 후기의 연금액이 작아지도록 설계할 수 있음.

[단점] 실제 운용수익률이 기대와 달리 높거나 낮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기대수익률과 인출률을 동시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음.

〈도표 10〉 고정비율형 셀프연금의 특징

구분	연금액	자산(수령기간)
특징	수익률에 따라 변동	자산 잔액의 일부만 수령하므로 이론적으로는 고갈되지 않으나, 본고에서는 자산 규모가 초기의 1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고갈되는 것으로 봄

\* 필요수익률: 수학적으로 자산 원본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한 필요수익률은 인출률보다 소폭 더 큰 값(=인출률/(1-인출률))임. 예를 들어 인출률이 4%일 때 필요수익률은 4.17%, 6%일 때 6.38% 수준임. 다만 인출률이 10% 이내인 경우 인출률과 필요수익률의 차이가 최대 1.11%p 수준으로 크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편의상 ‘수익률>인출률’일 때 원본이 대체로 유지된다고 봄.

◎ (예시) 1억 원을 보유한 은퇴자가 60세부터 고정비율형(인출률 10%)으로 셀프 연금을 수령한다고 할 때, 수익률에 따라 소득흐름과 자산의 증감여부가 달라짐.

- 각 수익률 가정(2~14%)에 따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각각 5,000회 실시함.

(가정) (수익률, 표준편차) = {(2%, 1.5%), (4%, 4.5%), (6%, 7.5%), (8%, 10.5%), (12%, 16.5%), (14%, 19.5%)}

- 시뮬레이션 결과, 수익률이 4%인 경우 중위 연금액이 1,000만원→512만원→262만원→134만원으로 점차 감소하지만, 수익률이 14%인 경우 중위 연금액이 1,000만원→1,129만원→1,270만원→1,415만원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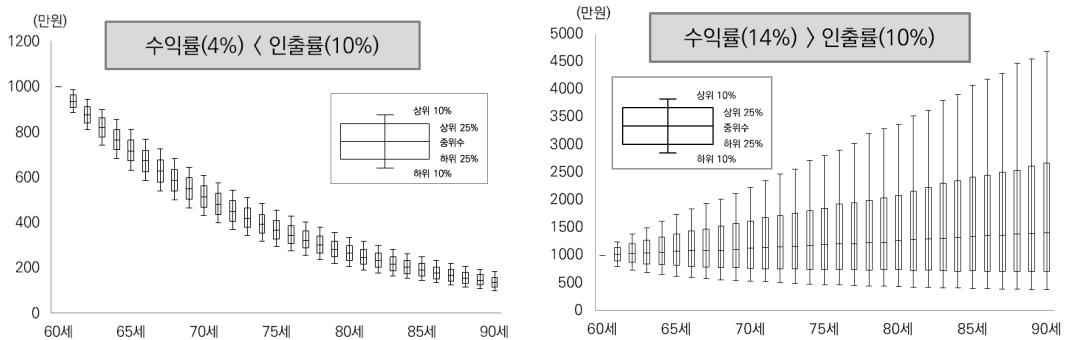
· 현실에서 연 수익률 14%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으나, 인출률보다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클 때 현금흐름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 임의로 높은 수익률을 가정함.

- <도표 11> 하단을 보면 ‘수익률 < 인출률’인 집단(좌측, 수익률 4%)의 경우 점점 수령액이 감소하며 수익률 상위-하위 은퇴자간 격차가 작지만, ‘수익률 > 인출률’인 집단(우측, 수익률 10%)의 경우 점점 수령액이 증가하며 수익률 상-하위 은퇴자간 격차가 큼.

〈도표 11〉 수익률별 고정비율형 셀프연금 수령액

평균수익률 (표준편차)		중위 연금액(만원)				수령기간(년) <sup>1)</sup>			
		60세	70세	80세	90세	평균	하위 10%	중위수	상위 10%
수익률 < 인출률	2%(1.5%)	1,000	425	180	77	26.4	25	26	26
	4%(4.5%)	1,000	512	262	134	33.9	29	31	34
	6%(7.5%)	1,000	610	373	227	38.8	35	40	40
	8%(10.5%)	1,000	720	520	375	39.6	40	40	40
수익률 > 인출률	12%(16.5%)	1,000	979	961	934	39.9	40	40	40
	14%(19.5%)	1,000	1,129	1,270	1,415	39.9	40	40	40

〈운용 수익률에 따른 분위별 수령액 추이〉



1) 수령기간 = 시작 시점부터 자산 잔액이 초기의 10% 미만으로 떨어진 시점까지의 기간

### Ⅲ. 셀프연금 활용방안

◎ 우리나라 은퇴자는 공적연금과 셀프연금을 결합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노후 현금흐름을 설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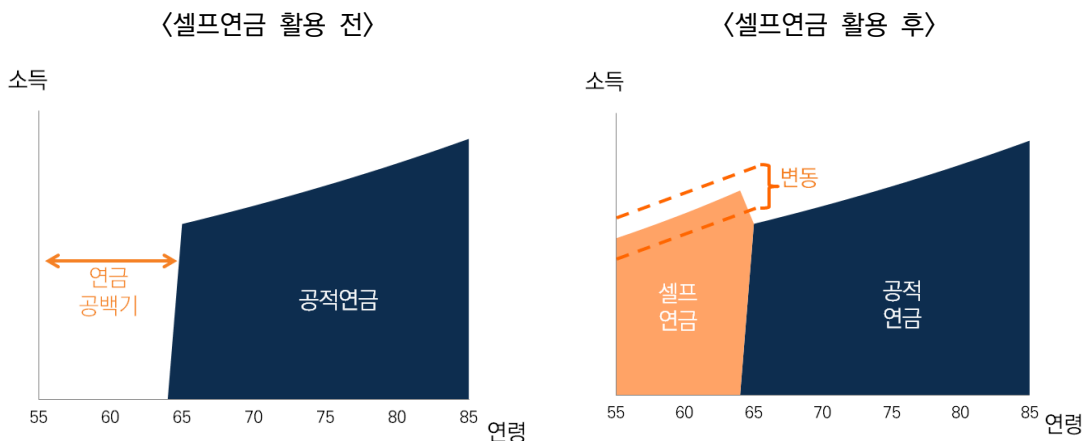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우리나라 은퇴자의 가장 대표적인 노후준비 수단임.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8년 말 기준 2,230만명 수준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을 포함하면 경제활동인구(2,854만명) 대부분이 공적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는 상품(또는 활동) 1순위는 공적연금(44.2%)이며, 2순위는 은행 예금(22.0%), 3순위는 부동산(11.1%)임.
- 그러나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를 전부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예금이나 금융상품 등 그 외 자산을 활용해 셀프연금과 결합하여 노후 소득흐름을 설계해야 함.

#### 1. 연금공백기 대비

◎ 수령시기가 정해진 공적연금과 달리, 셀프연금은 은퇴자가 직접 수령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므로 연금공백기\*의 소득원으로 적합함.

\* 연금공백기: '퇴직 후~국민연금 수령 전'의 시기를 의미하는 말. 근로자가 50대 중후반 퇴직한 후 근로소득이 없으나 국민연금을 수령하기에는 연령이 낮아 현금흐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간임.

〈도표 12〉 셀프연금의 연금공백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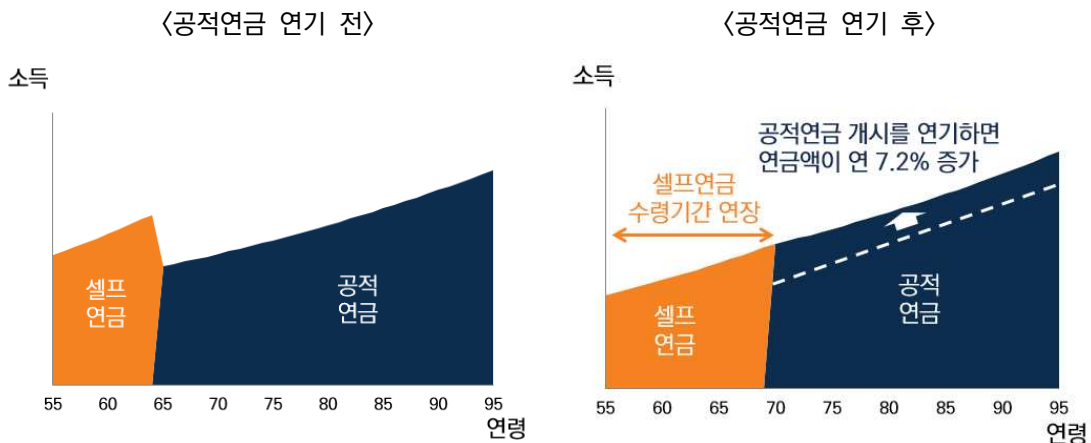
- 고령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남성 51.4세, 여성 47.6세)인 반면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만 62~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어, 두 시점 사이의 연금공백기는 10~15년에 달함.(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9)
- 연금공백기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을 조달할 때 고정기간형 셀프연금을 활용하면 수령기간을 '58~65세'처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 유용함.

## 2. 공적연금의 효과적 활용

### ◎ 셀프연금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기간을 늘리고 대신 공적연금 개시를 늦추면 오래 살수록 공적연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공적연금(국민연금)은 개시를 1년 뒤로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 증가하며, 개시를 5년 뒤로 미루면 최대 36%까지 연금수령액이 증가함.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기준값(A값)에 따른 증가분을 더하면 증가율은 36% 이상임.
- 공적연금 개시 연기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수명이 길어질수록 커지는데, 개시연령을 65세→70세로 늦출 경우 손익분기점은 79세임. 즉, 79세 이후 생존 시 연기 후 누적 연금수령액이 연기 전보다 커짐.(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 은퇴리포트 No.40 참조)

〈도표 13〉 셀프연금을 활용한 공적연금 연기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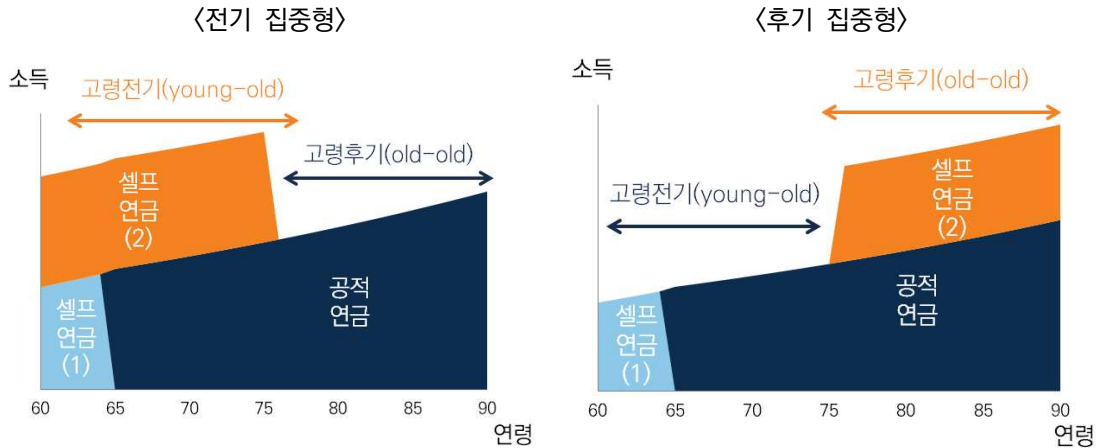
## 3. 지출 패턴에 맞는 현금흐름 설계

### ◎ 은퇴자의 필요에 따라 셀프연금의 연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지출 패턴에 맞는 현금흐름 설계가 가능함.

– 은퇴자가 나이가 들면서 고령 전·후기의 건강상태와 생활패턴이 달라지게 되므로, 개인의 선호와 상황에 따라 적합한 셀프연금 설계가 필요함.

- 고령 전기(60~74세) : 중년기 소비 패턴과 유사하나 교통 및 의복비 지출이 축소되는 시기
- 고령 후기(75세 이상) : 식사 마련 및 개인 돌봄 서비스, 의료비 지출 크게 증가

〈도표 14〉 지출패턴별 셀프연금 활용



◎ 고령 전·후기 노후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근로소득·주택연금과 같은 소득을 활용하여 셀프연금과 조합하는 방법도 있음.

① ‘고령전기 근로소득-고령후기 셀프연금’ 전략

–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주된 직장 퇴직 이후에도 평균적으로 70대 초반까지 다양한 형태로 경제활동을 지속함. 고령전기에는 근로소득으로 생활하고, 고령후기에는 셀프연금을 배치하면 현금흐름을 일정하게 조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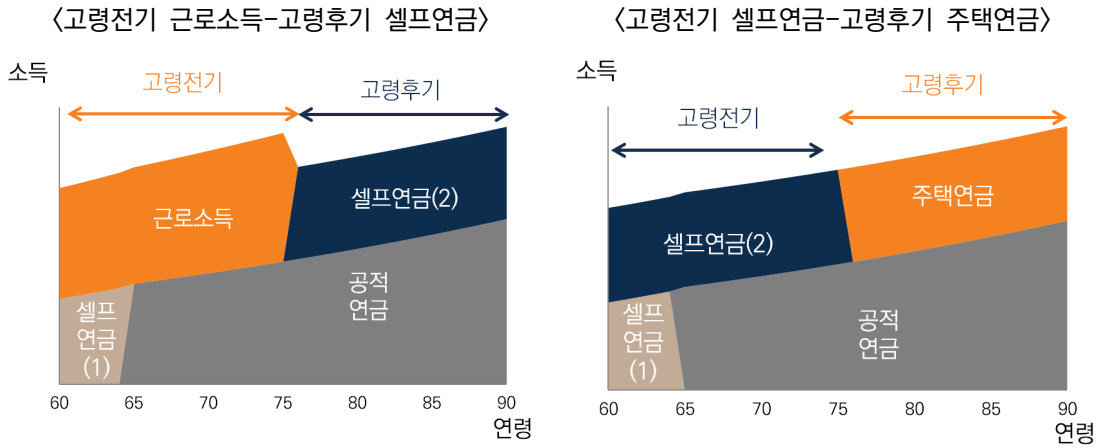
-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의 실질은퇴연령(모든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나이)은 평균 72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2019년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79세 인구 10명 중 4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② ‘고령전기 셀프연금-고령후기 주택연금’ 전략

–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사망시점까지 연금을 받고 사후에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는 제도임.

– 주택연금은 필요에 따라 고령 전·후기 수령이 모두 가능한데, 주택연금을 후기에 개시하고 셀프연금을 전기에 배치하면 주택연금을 일찍 개시할 때보다 연금액이 늘어나 효과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함.

〈도표 15〉 근로소득·주택연금과 결합한 셀프연금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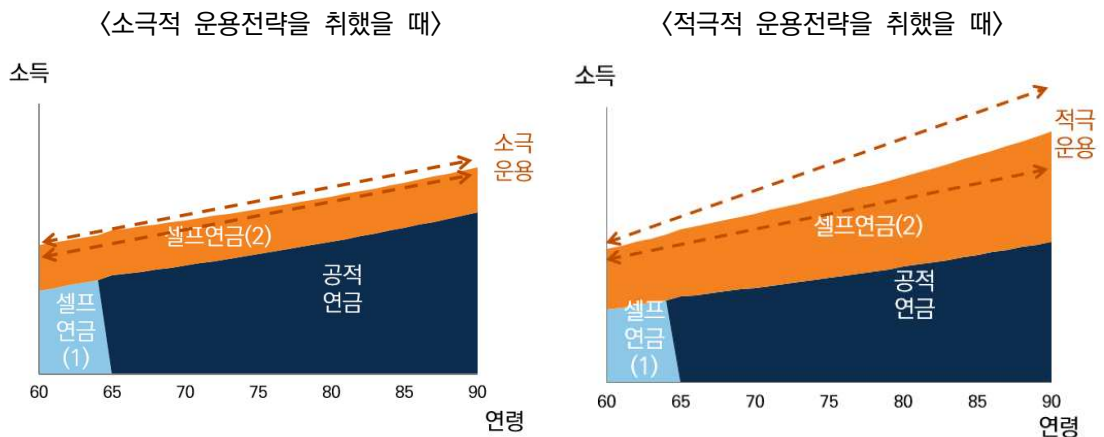


#### 4. 적극적 운용을 통한 노후소득 증대

● 셀프연금의 재원(예금, 펀드 등) 일부를 투자자산에 배분하면, 위험수준을 적절히 유지하면서도 노후자금과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노후 투자자산을 소극적으로 운용할 경우 수익률의 변동성이 낮은 대신 수익률이 낮음. 반면, 적극적으로 운용할 경우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지지만 그만큼 기대수익률도 높아지므로 노후자금 증대를 통한 연금액 증대를 꾀할 수 있음.
- 특히, 공적연금·근로소득·종신연금 등 안정적 소득이 있을 경우, 이들이 노후 생활의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셀프연금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노후소득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구사해 볼 만 함.

〈도표 16〉 셀프연금 재원 투자를 통한 노후소득 증대 전략



## IV. 시사점

- 은퇴를 준비하는 개인은 ‘셀프연금을 활용한 4-Step 노후소득 설계법’을 이용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셀프연금 및 노후소득 설계를 쉽게 할 수 있음.

### 셀프연금을 활용한 4-Step 노후소득 설계법

#### Step 1



#### 노후대비 금융자산(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점검

- > 예적금, 퇴직·개인연금, 저축보험 등  
‘셀프연금’으로 전환 가능한 상품의 만기 및 은퇴시점 예상 금액 확인

#### Step 2



#### 셀프연금을 제외한 노후 소득원 파악 (공적연금·근로소득·주택연금 등)

- > 공적연금: 수령시기 및 예상수령액
- > 근로소득: 예상 근로기간 및 소득
- > 주택연금: 주택가액 및 개시연령별 수령액

#### Step 3



#### 현재 지출패턴 검토 및 은퇴 후 소득 목표 수립

- > 소비항목별(주거비, 식비, 교통통신비 등) 지출액 파악
- > 노후를 전기-후기로 구분하고  
각 기간의 소비항목별 지출을 가정해 **소득 목표 설정**

#### Step 4



#### 지출목표에 맞는 현금흐름 설계

- > Step2에서 파악한 금액이 Step3의 소득목표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 지 계산
- > 부족한 금액은 셀프연금을 활용해 보완
  - 필요 기간이 일정한 경우: 고정기간형
  - 필요 소득이 일정한 경우: 고정소득형
  - 유연한 현금흐름이 필요한 경우: 고정비율형

##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저성장·저금리·고령화로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은퇴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은퇴자산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 01 은퇴자산은 글로벌로 분산투자해야 합니다.

저성장·고령화로 인해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은퇴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02 은퇴자산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합니다 .

집중투지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은퇴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

### 03 은퇴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은퇴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 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

### 04 은퇴자산은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은퇴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

### 05 은퇴자산은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은퇴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시기부터 그에 맞게 은퇴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

오늘날 공적 사회보장 제도만으로는 노후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저금리·저성장·고령화라는 '2低1高 시대'를 맞아 은퇴자산을 축적하고 운용하는 데 개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은퇴콘텐츠 개발 및 연구, 전문적인 은퇴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를 통해 은퇴설계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미래에셋은퇴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 [29] 100세 시대 은퇴재무설계, 이제는 소득배분이 필요하다, 2016.9
- [30] 노벨경제학자 3인에게 배우는 은퇴재무설계, 2016.11
- [31] '은퇴자금 승수'로 알아보는 나의 은퇴자금 계산법, 2017.1
- [32] 5060 은퇴리스크 매트릭스, 2017.3
- [33] 노후자금 인출의 숨겨진 위험 시퀀스리스크, 2017.5
- [34] 덩케르크 철수작전에서 배우는 노후자금 인출전략, 2017.10
- [35] 투자자산을 연금화(化)하는 5가지 방법, 2018.2
- [36] 연금자산의 TDF 투자현황과 개선방안, 2018.4
- [37]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가계 자산 특징 및 시사점, 2018.10
- [38] Next 20년, 내 자산을 어디에 둘까-일본의 '과거 20년'이 주는 교훈, 2018.11
- [39] 은퇴자를 위한 피사의 4탑, 2018.12
- [40] 초장수시대의 노후자산 운용, 2019.7

은퇴리포트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retirement.miraeasset.com](http://retirement.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은퇴리포트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본 내용을 인용하거나 전재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